

불자 세상보기



박호석  
교사·前 농협대 교수

청량(淸涼)은 부처님의 지혜가 맑고 시원한 것이 찬물과 같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찬탄의 말이다. 그래서 경북 봉화의 청량산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께서 상주하시므로 온 산이 불교이름이었다.

1544년 봄, 이 산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당도하여 “불경의 말과 음란한 이름은 청량산 선경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로 청량산 열두 봉우리 가운데 열 개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주봉인 의상봉은 장인봉으로, 보살봉은 자소봉, 치원봉은 금탑봉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승유배불의 시대라고 예전부터 사람이 살아오던 땅이름은 함부로 바꾸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지명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

비들은 피를 내어 지명에 나타난 불교 색을 지웠다. 이를테면, 절을 뜻하는 승(僧)을 사나 승·泗·巳·叢 따위로 쓰던가, 승(僧)을 더해 諱(氏)로 바꾼 것이다. 또 미륵(彌勒)을 미력(彌力)이라 하거나 용화(龍華)를 龍化로 썼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행정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불교지명이 사라졌다. 전라도 익산군과 광산군에 있던 제석면(帝釋面), 미륵면(彌勒面), 극락면(極樂面)이 없어진 것이 바로 이때다.

불교를 국교로 했던 삼국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온 나라는 이름만으로도 불국도였다.

조선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불교관련 지명을 보면 불타·불암·불경·불족·불대·불정·불명·불모·불용·천불·미타·문수·관음·미륵·지장·나한·가섭·화엄·도솔·반야·보리 따위로 웅변한 불교 용어가 다 등장한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바로도 현존하는 지명 가운데 불교 용어가 500여 가지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1960년대에 조사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지명에서 ‘절골’이 무려 8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불교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조선 500년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명의 훼손과 왜곡이 있었지만, 이렇거나 버려진 것은 지명이 가지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었다.

지명은 자신이 태어난 유래와 그 지역의 역사와 풍속을 고스란히 이름 속에 담고 살아온 생명체이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의 지명이라고 함부로 그 생명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지명도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해야만 하는 문화유산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런 유산을, 수백 년이나 천 년을 넘겨 지키고 써온 지명을 하루아침에 생매장하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

그것이 종교 편향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2001년에 인위최고의 문화재인 바비안 석불을 폭파한 탈레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폭거이고, 그런 동기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한심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는 종교편향이 유독 심한 이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어떻게 수백 년 써온 보현리와 관음리를 개칭치고 ‘가마들길’ ‘갈을길’로 바꿀수 있는가? 어떻게 천년을 써온 가야면의 이름이 시장길에 의탁해서 목숨을 부지한단 말인가? 해당 지역의 수많은 길 이름을 숫자로 대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본래의 지명을 부여하면 될 것을 왜 강고리 없애려 하는가?

정부당국은 새로 바꾸려 하는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세대를 역사와 전통을 말살한 죄인이 되게 해서라도 되겠다.

확정된 새 주소는 3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3년 이후라도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새 주소체계의 시행 이후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는 행정폭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이 이런 입장을 풀지 않고 시행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나가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社說

민족문화수호는 트렌드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해묵은 사찰 관련 규제법을 완화하겠다고더니, 이번에는 사찰 관련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 불교 지명이 대폭 사라진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먼저 대화의 불교를 뒀다. 불교계의 숙원이던 연등회의 문화재 등록이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막히자, 이번에는 주무장관이 직접 나서 올해 안에 연등회를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 특위를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전통문화 수호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정부·여당의 선심(?)을 선뜻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조계종과 상호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안에 대해, 조계종은 아무 소득도 의미도 없는 만남이었다고 평가절하 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등 전통문화재 관련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태도이다. 특히, 불교계가 정부의 큰 시혜를 받는 양 오해 받

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혹자는 조계종의 이런 태도를 표정 관리로 보기도 한다. 이미 지도자급에서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무자 선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으로 비춰 정부는 국민에게서, 종단은 대중에게서 지지와 감동을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드라마틱한 연출과는 무관하게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은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 때문이다.

윤문 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 하였다. 불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떠한 날이지만, 주기적으로 선기를 치러야하는 정치인들은 시간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불교법회와 민족문화를 확대하던 모습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는 이유는, 그들의 생사가 불자들이 가진 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겪어온 불합리와 부당한 대우를 되풀이 않으려면 그들의 진면목을 알아볼 해안이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 보존과 민족문화수호는 트렌드가 아니다.

해초기념관 온전히 세워지려면

동국대 해초원정대가 7월 6일 중국 시안(西安) 선유사(仙遊寺)와 해초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다.

한·중 불교계는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해왔다. 하지만 종주의 자취를 좇는 선양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 경 서울 조계사가 선유사와 ‘신라국 고승해초기념비’를 세운 것과 더불어, 종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해초스님의 기념관을 양국이 세우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한국 종단과 중국 사찰간 협약이 아닌 대학과 사찰간 협약은 한·중 불교교류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반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해초기념관 설립은 동국대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일이다. 하지만 그 모양새가 구호 수준의 일회성 지원이어서는 안된다. 없던 것을 세우고 만드는 불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불사이다. 해초기념관이 온전히 설립·유지되려면 중국 불교에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국 불교계는 해초기념관 설립 지원에 우선해 방치되고 있는 ‘신라국고승해초기념비’부터 재정비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이미명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지루한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밀린 빨래에 귀퉁한 냄새가 나고, 집 안팎이 습기와 곰팡이로 뒤덮여 불쾌하기 짝이 없는 계절입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적절 해내는 바지런 함과는 거리가 먼 나는 집안 청소며 빨래, 냉장고의 음식 정리 등을 한없이 미루기만 하는 나의 집에는 장마철 손님인 곰팡이며 세균덩어리가 눈에 보이는 듯 해서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마철이 참 좋습니다. 나 같은 게으름뱅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꺼내드립니다. 아찔인지 한낮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집안에서 시간을 잊어 버리고 책 속에 빠져들기가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 책을 파고드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든 습관입니다. 도매점을 운영하던 우리 집에는 퍼꺼머리 점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불려나가 자정이다 되어야 하루 노동에서 풀려나는 점원들의 방은 언제나 이부자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들이 비워놓은 어지럽혀진 방에 들어가 이불을 들춰봅니다. 어김없이 만화책들이 이불 밑에 깔려 있었고, 이따금씩은 아직 열 살이 채 되지 못한 내게 다소 이해난감한 아련한 내용까지도 섞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종가들의 방에서 이불과 한 덩어리가 되어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만화나 소설을 읽던 그 즐거움은 밖에서 친구들과 소리 지르며 뛰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넙기는 페이지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고 묵직해지면 평소 바짝 말라 있던 문자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죽어 있던 단어에 통통하게 감정의 살이 오르기 때문일까? 아무튼 장마철이면 나는 책을 읽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장마철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 한 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창 아래에 바짝 머리를 대고 잠을

청하는 것이지요. 나무장들은 비에 젖어 검게 변하고 유리문도 잘 닫히지 않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 밤새 창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장벽에 내리던 비는 바람에 실려 붉은 방울을 후두둑 잠든 내 얼굴에 뿌립니다.

아, 유쾌할! 세상에 어떤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지만 일부러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내 얼굴을 조금 더 두드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누워서 비를 맞다가 잠이 완전히 깨면 그때 일어나 책을 읽습니다. 부엌에 동이 터와 스탠드 불빛이 바래질 즈음 세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소란스러워지고, 나는 그제야 뻥뻥해진 눈을 부비고 잠을 청합니다.

남들 움직일 때 잠을 자고, 남들 들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으름뱅이는 사실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두둑하다 해도 이런 삶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지갑이 얇아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아침 잠을 청할 수 있는 계절이 장마철인 것이

게으름뱅이가 서둘러야 할 시간

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한결같이 어둑하고 꾸물꾸물한 천연조명이 불안감을 위로해주는 덕분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음악을 꺼버리고 그 좋아하는 책도 잠시 접고 창가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퍼붓는 빗줄기, 그 절망 가득한 탄식을 귀를 기울입니다.

일 년에 단 한 번 오감을 열어두는 이 비의 명상, 귀 가득 빗소리를 담아보는 일도 장마철에만 이루어지는 게으름뱅이의 수행입니다.

여름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시작합니다. 장마가 습습 지겨워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구겠지요. 세상은 더위에 질식사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 하늘은 점점 높아져 가고 풀벌레 소리가 세상의 적막을 깨는 날이 찾아오겠지요.

아아, 이 게으름뱅이에게 장마철이 끝나는 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책 속의 단어들 다시 바짝 메달라갈 테고, 열아놓은 창으로는 더 이상 빗방울이 뿌리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장마철이 며칠 더 남았을까요? 그렇다면 몇몇 게을러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네요. 게으름뱅이가 서둘러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으름뱅이가 서둘러야 할 시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 월, 일, 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길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된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와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학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한국의 명철 자미두수 비법 4x6배판/高山 영창용 저/양장본/4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저/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2 권 680쪽/각 권 50,000원

신국의 영부적 대사건 김백만 편자/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임,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홍예이: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